



# Integrated Risk Management

---

## 통합 리스크관리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금융 관련 신기술 도입 및 글로벌 사업영역 확대가 가속화되는 등 금융회사를 둘러싼 환경은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의 융복합이 진행되면서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범위 또한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본질을 읽고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재무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유출, 자연재해,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오염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유도하고, 평판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ESG) 이슈를 고려한 여신 및 투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본질을 읽고, 성공적인 리스크 대응을 위한 관리 체계**

신한금융그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리스크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제반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리스크관리 철학을 기반으로 리스크관리 조직뿐 아니라 모든 조직의 업무 수행 시 리스크 인식 및 관리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주회사 이사회 내의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룹위험관리책임자(CRO)는 그룹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하며, 각 그룹사 위험관리책임자들로 구성된 그룹리스크협의회를 통해 리스크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을 논의합니다. 각 그룹사의 위험관리위원회 및 리스크 관련 실무위원회,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은 그룹리스크정책 및 그룹리스크전략과 일관된 세부정책과 전략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통합위기사상 분석과 다양한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그룹 차원의 위기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위기인식, 영향분석을 통한 위기단계 결정과 대응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룹리스크협의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룹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한 그룹 차원의 공동 위기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룹사별 리스크관리 담당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리스크 전문가 네트워크(이하 REN: Risk Expert Networ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REN은 주제별 학습과 연구, 토론회 등이 진행되는 그룹 공동 연구조직입니다. REN을 통해 그룹의 리스크 현황을 공유하고 그룹 내 시너지 확대를 위한 창의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6년 4개의 Unit에서 그룹 차원의 리스크 전략 과제와 연계한 자산 배분 및 포트폴리오 관리, 핀테크, 고객자산 리스크관리 및 글로벌 비즈니스 리스크관리 등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리스크관리 원칙**

- 모든 영업활동은 사전 설정된 위험성향 내에서 리스크와 수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 지주회사는 그룹리스크 관리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한다.
- 경영진의 관여를 제고하는 리스크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한다.
- 영업부문과 독립적인 리스크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 비즈니스 의사결정 시 리스크를 명확히 고려하게 하는 성과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리스크관리 기능을 지향한다.
- 평상시에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신중한 시각을 공유한다.

**재무적 리스크**

신용리스크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시장리스크	금리, 주가, 환율 및 상품가격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른 리스크
금리리스크	금리변동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변동 등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자산의 유동성이 부족해 대외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비재무적 리스크**

운영리스크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인력 또는 업무절차, 시스템 오류 및 외부사건으로 인한 리스크
전략리스크	불리한 사업결정, 부적절한 결정의 수행,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결여 등에 따른 리스크
평판리스크	경영부진, 금융사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고객, 주주 등 외부 여론 악화에 따른 리스크
법률리스크	각종 계약 문서의 이해 부족 또는 소송 등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
환경리스크	환경관련법규 대응력 부족으로 인한 과징금 발생, 영업손실 등에 따른 리스크

**ESG 리스크관리**

신한금융그룹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유도하고, 평판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회와 환경, 지배구조 이슈를 고려한 여신 및 투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과 유흥 주점업, 대부업체 등 불건전한 업종에 대해서는 여신 취급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요청 시 여신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및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용등급에 반영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모든 신용공여 거래처에 대해 실시하는 신용평가에는 지배구조나 경영체계, 사회적 공헌도, 환경문제 발생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신용평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의 진위성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필요 시 전화, 면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도 해외의 경우, 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환경변화가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IFC 기준에 따른 검토를 진행하며, 국내 PF 취급 시에도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등 사회적 요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룹 내 자산운용 계열사는 인명피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Controversial weapons의 제조, 거래, 보관, 기술, 서비스 등에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Controversial weapons란 Anti-personnel mines, Cluster weapons, Nuclear weapons,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Depleted uranium ammunitions 등을 말합니다. 또한 Controversial weapons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주식형 공모펀드의 운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리스크관리 인프라**

신한금융그룹은 리스크관리 인프라 및 내부통제 강화 부문에서 우수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6년 지주회사 최초로 그룹 유동성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 산출뿐 아니라 유동성 관리와 관련하여 그룹사별 취약 영역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그룹 차원의 효율적인 여신감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룹 내 조기경보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신규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한편,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 설정 시 국가별 위험수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가 신용등급 이외에 국가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재무적, 비재무적 지표들을 발굴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에 따른 잠재위험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디지털금융 등 비즈니스 행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리스크 수준에 따른 여신 운용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평가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저축은행에서 최신의 모형 개발 방법론을 적용해 중금리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완료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한 연료전지 발전소(내부)